

SK 노조, 소속 상급단체 변경!

9월17-19일 조합원 총투표 실시 ... 투쟁수위 한층 높아질 듯

SK 노동조합(위원장 임명호)이 9월17-19일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.

SK 노조는 9월15일 현 집행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상급단체 변경을 통해 현재의 <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SK 노동조합>에서 <민주노총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SK 노동조합>으로 소속을 바꾸기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.

SK사태가 시작된 2003년 2월 이후 오너인 최태원 회장 경영일선 퇴진 및 노조의 경영참여 등을 놓고 회사측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SK 노조가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하게 되면 각종 현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SK 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은 현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며, 민주노총으로 소속이 변경되면 사측의 불법행위 및 노동탄압에 대한 투쟁의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9/16>